

# 수영 수업·영어 몰입 캠프 등 개선 필요

## 영광군 '교육경비 지원사업 성과 분석' 결과

### 인재 아카데미·농어촌 중심교 육성 등 7개사업 '최우수' 학부모 만족도 조사·평가 시스템 조례 명시 등 조치 요구

영광군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 정책 중 글로벌 문화체험과 특성화고·농어촌 중심교 육성 지원 사업 등은 학생·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효과도 커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농어촌 중심교 육성 지원은 확대해야=8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이 (농)도 발전연구원에 '영광군 교육경비 보조사업 성과분석 및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최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인재 아카데미 ▲농어촌학교살리기 ▲농어촌 중심교 육성 ▲인재육성기금 300억원 조성 ▲인재육성기금 장학금 기금 ▲글로벌 문화체험 운영 ▲특성화고 지원 등 7개 사업이 꼽혔다.

영광군이 지역 내 29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30~40여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성과 평가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객관적 평가를 거쳐 합

리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에도 외부 재원 조달의 한계에 직면한 점을 감안, 교육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하자는 의도도 엿보인다.

성과분석 사업은 지난 2014~2016년 진행된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사업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 ▲인재육성기금 지원사업 ▲기타 교육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방과후학교·체력증진 수영수업·무지개학교 교육지구사업·인재아카데미·특성화고·농어촌학교살리기 지원 사업 등이 꼽혔다. 인재육성 지원사업에는 원어민영어보조 교사·외국어체험센터·영어 몰입캠프·영어학수대상자 선발 및 해외어학연수(2016년부터 변경 추진)·글로벌 문화체험

수영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인재육성기금 지원사업은 인재육성기금 300억원 조성·우수학교 및 교육정책 지원·장학금 지급 사업 등이며 기타 교육지원사업에는 학교 시설 개선이 꼽혔다.

수영 수업·영어 몰입캠프 개선점 찾아=연구원은 사업별 평가를 거쳐 7개 사업은 S등급을 받아 해당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외국어체험센터 운영·인재육성기금 우수학교 및 교육정책 지원·방과후학교·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부모랑 아이랑 행복한 영광 캠프·원어민 영어보조교사·영어 몰입캠프 등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장 입장료·강사료·간식비 등을 지원하는 체력 증진 '수영수업' 운영 지원과 영어체험 교실 설치·다목적 강당이나 급식실 증축·운동장 정비 등으로 추진됐던 학교시설 개선 지원 사업 등은 사업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영수업의 경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이지만 대상 선정 및 운영 계획에 대

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강사 1인당 학생수가 많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도 외국인 교사 활용도가 미흡하고 성과 측정 방안이 없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어 몰입캠프 지원사업도 부진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와 달리, 부진 학생보다 우수 학생 중심으로 선발하는 과정의 문제점과 영광군 내 영어 중심 중보사업에 대한 통·폐합 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점을 바탕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조건으로 ▲각 사업별 평가 시스템을 조례로 명시할 것 ▲사업별 학교측의 자체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의무화 ▲민간 기업 등을 통한 인재육성기금 조성 방안 마련 ▲지역 환경에 맞는 학년별 교육경비 보조사업 커리큘럼 수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광군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결정하는 데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영광=김민석기자 mskim@



대한민국 국향대전 행사장 전경. <함평군 제공>

## 함평 국향대전 24만명 즐겼다

### 작년보다 4만명 늘어...입장료·특산물 판매 역대 최대

'2017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역대 최대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 국향대전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4만명이 늘어난 24만5882명으로,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인원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난 2008년 26일간 33만명이 다녀간 적은 있지만 17일로 개최 기간을 줄인 점을 감안하면 역대 최고의 관람객 수"라고 설명했다.

축제를 찾은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각종 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입장료 수입은 역대 최대금액인 8억원을 기록했다. 8년 연속 6억원 이상 입장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2년 연속 흑자를 냈다.

축제장 내 농·특산물 등 현장 판매도 전년보다 2억8000만원이 많은 14억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함평군은 국화꽃 개화시기를 앞당겨다 지역에서 열린 축제와 차별화를 이룬 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제 7회 전국 명품 한우와 단호박 요리 경연대회, 각종 음악회도 가족단위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들이는데 한몫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평군 관계자는 "전국 최고의 국화 축제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 영광 천일염 찜질방서 힐링 하세요

### 郡 소유 염전에 건립...내년 4월까지 운영

영광군이 찜질방 운영에 들어갔다. 소금 생산을 하지 않는 비수기(11월~4월)에만 운영되는 시설로, 군 소유 염전 내부에 마련됐다.

영광군은 내년 4월 말까지 염산면 군 소유 염전 내 영광 천일염 홍보·체험관(찜질방·사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시범 운영한 뒤 올해 시설 개·보수를 거쳐 지난 1일 문을 열었다. 매일 오후 2~9시까지 운영되며 영광군은 3000원, 이외 지역민들은 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직접 찜질방 시설을 건립한 것은 이례적으로, 영광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찜질방을 건립했다는 계영광군 설명이다.

천일염 찜질방을 통해 혈액순환과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직접 체험하면서 영광 천일염의 브랜드 인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 천일염은 나트륨 성분이 낮고 특히 인체에 좋은 게르마늄 등 각종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면서 "영광산 소금 찜질의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염산면 일대 염전 업주들의 모임인 두우 권역 운영위원회에 위탁해 운영토록 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 영광군 내년 청년사업 18억 투입

### 청년발전기금 심의위원회 18개 사업 확정

영광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청년발전기금 심의위원회(사진)를 열고 영광군 청년발전기금으로 추진할 내년 주요 사업을 확정했다.

내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이 살아갈 수 있는 활력있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년이 자립하는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영광군이 최근 수립한 제 1차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2018~2022)은 신규 청년정책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됐다.

주요 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 희망 플러스통장 운영, 청년 도전 프로젝트 지원, 영광 사랑 출산축하용품 지원,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청년장애인 드림카(Dream Car) 지원, 청년 농촌 활력 지원 등 18개 사업에 18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영광군은 또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정책 워크숍도 추진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 전남도립국악단 오늘 영광 예술의전당서 '다와락' 공연

전남도립국악단은 9일 오후 7시 영광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다(多)와 락(樂)'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에서는 웃어른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담은 '다향', 전통춤의 기본 춤사위를 바탕으로 구성된 '입춤', 국악에 서양음악을 접목해 민족의 정서를 담은 음악으로 표현한 국악가요 등을 선보인다. 남도립국악단은 지난 1986년 8월 창단. 어린이 국악단을 포함, 장악·기악·무용·사물 등 120여명으로 이뤄져 기본 춤사위를 바탕으로 구성된 '입춤', 국악에 서양음악을 접목해 민족의 정서를 담은 음악으로 표현한 국악가요 등을 선보인다. 남도립국악단은 지난 1986년 8월 창단. 어린이 국악단을 포함, 장악·기악·무용·사물 등 120여명으로 이뤄져 기본 춤사위를 바탕으로 구성된 '입춤',

## 무안 청계초서 '찾아가는 미술관·박물관'

무안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미술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내 학교에서 만나는 우리 미술관·박물관' 행사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청계초·청계북초·청계남초 학생 250여명을 대상으로 무안 청계초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의 교류 협력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 미술관·박물관이 학교를 찾아가 관련 전시를 선보이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청소년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무안 오승우미술관을 비롯, 목포자연사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룡박물관, 남도전통미술관, 소금박물관 등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지구생명의 출현과 진화'를 주제로 알로사우루스 화석 등 15점을 선보인다. 신안 소금박물관은 '소금, 꽃이 되다'를 내걸고 소금 관련 유물을 전시한다.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배 모형을 전시할 예정이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제주도 강정마을 (펜션, 타운하우스부지) 바다 한라산 조망권최상 대지 15,716㎡ 매매가 평당220만원(교한, 조정가)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동구 자산유원지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대지 3,041㎡ 매매가 평당70만원(조정가)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대지 7,226㎡ 매매가 평당50만원(조정가)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